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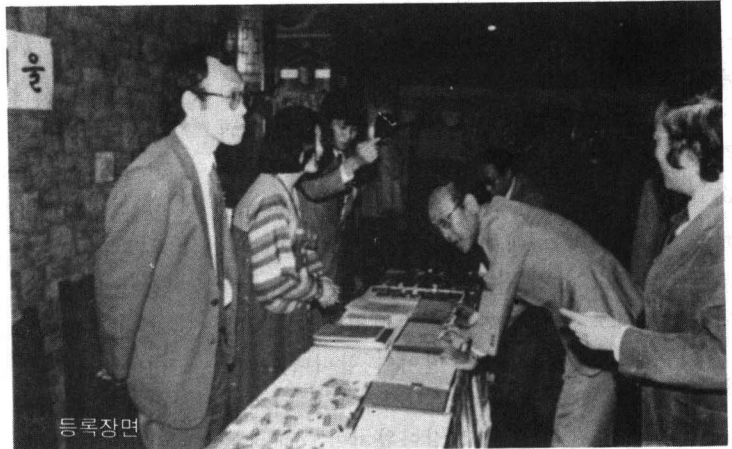
병원和合과 團結의 한마당 펼쳐진 釜山총회

○...大韓病院協會 제26차 정기총회가 열린 5월 1일 釜山은 화창한 초여름 날씨를 보여 총회를 축하라도 하는 듯 모임에 가장 쾌적한 날씨를 연출.

이날 총회가 열린 코모도호텔은 온통 병원 축제 분위기로 一色이었는데 호텔관계자들도 전국적인 큰 행사에 들뜬 모습으로 총회 뒷바라지에 최선을 다하는 분주한 모습이였다.

○...등록은 오후 부터임에도 불구하고 제주도 韓國病院 高泰萬원장은 오전 11시30분경 회의장에 도착, 제 1 착으로 등록을 마치므로써 총회에 대한 높은 관심을 표시하기도.

개회시간이 임박하자 회의장



에는 3백여명의 회원병원장 및 관계자들로 성황을 이뤘 서로의 안부를 묻는 등 밝은 표정으로 인사를 주고 받는 모습들로 가득차 축제 분위기가 고조.

○...개회식은 국민의례와 朴

利甲총무이사의 병원윤리강령 낭독에 이어 白樂院회장의 개회사로 진행. 白회장은 개회사에서 우리나라 최대의 항구도시 釜山에서 처음으로 지방총회를 갖게 되어 무척 기쁘다는 말로 총회 개최를 위해 힘써 온 金炳洙부산지부장 및 지부관계자들의 노고를 치하하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 金부산지부장은 환영사를 통해 釜山の 風物과 人情을 맛보며 알찬 결실을 얻는 총회가 되어 달라고 인사 함으로써 전국 병원장 및 관계자들로 부터 박수를 받았다.

○...趙雲海전회장이 감사패를 받았는데 참석자들은 뜨거운 박수로 趙전회장의 재임기간 동안의 노고를 치하.



◇ 金炳洙부산지부장이 환영사를 하고 있다.

아시아병원연맹 회원국 대표로 참석한 일본, 자유중국 대표들도 아낌없는 박수로 趙전회장을 축하하며 화합된 개회식 분위기를 부러워 하는 모습.

○...개회식에 이어 주제강연에 들어가자 참석자들은 「국민을 위한 병원이 나아갈 길」이란 주제가 매우 시의적절한 주제선택이란 반응과 함께 강연이 매우 유익했다는 평.

첫번째 강연에 나선 張起呂 박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차분한 목소리로 병원경영의 기본정신은 「희생」「사랑」「봉사」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번째 강단에 오른 尹德善 박사는 강연에 앞서 張起呂박사와의 오랜 인연을 소개하며 『오래전 張박사가 환자를 대하는 모습에 감복하여 그 후 張박사와 같은 방법으로 환자를 대하려고 했다가 오히려 혼이 났다』는 일화를 들려주며 『좋은 말도 인격과 덕을 갖춘 사람이 해야한다는 것을 느꼈다』고 張박사에 대한 존경의 뜻을 나타내자 좌중은 한바탕 웃음으로



◇ 趙靈海전회장이 白樂晚회장으로 부터 감사패를 받고 있다.

분위기가 부드러워지기도.

○...총회는 白회장의 인사말과 盧庚昞부회장의 병원연혁 낭독 다음으로 지난해 사업 실적 및 결산보고, 금년도 사업 계획 및 예산심의 등의 순서로 진행되어 집행부 원안대로 모두 받아들여졌다.

대정부건의문 채택에서는 참석자 모두가 건의내용이 심각한 병원계 현안당면문제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만장일치로 통과시키고 현안문제토의 순서에서도 이들 현안문제들을 신중히 검토 공동 대처키로 결의.

○...총회가 예정된 시간보다 다소 늦게 끝남으로써 부폐식

당에서 열린 만찬도 다소 늦게 시작됐다

만찬은 참석 원로인사와 회장단이 함께한 테이블을 중심으로 회원병원장 및 병원관계자들이 삼삼오오 둘러 앉아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

만찬장 곳곳에서 참석자들은 회의를 떠난 홀가분한 모습들로 웃음꽃을 활짝 피워냈다.

○...특히 이번 총회에는 부산대학병원에서 예쁜 한복을 입고 지원나온 두여직원이 이채를 띠었는데 총회후 이들 여직원은 『이같이 큰 행사에 조그마한 힘이라도 보탬이 되어 무척 기쁘다』며 약간 상기된 모습.*

◇ 리셉션

◇ 만찬

